

군 주요 지휘관과의 대화 말씀 - 전략적 사고로 미래를 준비하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저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대통령의 책임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국군을 통수하는 일인데 여러분을 보면 항상 든든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자신만만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당연히 그런 믿음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태도에서 풍기는 느낌이 그런 믿음을 줍니다. 또 하나는 박수 소리가 매우 커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칩시다.

여러분은 전쟁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전쟁을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순된 상황이죠? 전쟁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들이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전략적 사고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강연의 제목으로 한국의 미래,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전략 같은

이름을 붙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전략적 사고로 미래를 준비하자' 는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략적 사고라는 개념 하나와 미래라는 개념 하나를 여러분에게 던져 놓고, 전쟁이 과연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쟁을 없게 할 것이며, 만일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설로서 '역사는 반복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놓고 100년 전 정세와 유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날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세대가 아마 수백 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에 대한 기대는 여지없이 깨지고 전쟁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는 법칙에 의하면 전쟁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역사가 있고 진보하는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하는 역사는 인간의 지혜가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의 존엄성, 인권,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산돼 나가는 과정을 역사의 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노예를 부리던 시절도 있었고, 신분의 차이를 두고 지배하고 복종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 적어도 한 나라 안에서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것이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시 전제군주 시대 또는 절대주의 시대로, 파시스트의 시대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미 몸으로 체험하고 모두의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뺏어 가는 어떤 제도나 질서에 대해서 결코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간의 대결 상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쟁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를,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을 장기적으로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온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족 상태로 남아 있던 지역은 이제 다 해소되고 모든 나라가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의 체도를 정비하고 대체로 민주주의 사상과 결합시켜서 국가라는 체도를 발전시키고, 그러면서도 세계 보편적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에 있어서 역사는 진보하고 있는 것이고, 이 진보는 전쟁과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여간해서 전쟁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질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도 여기저기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이 분단돼 있고 오랫동안 대치해 왔고 지금도 대치 상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됐다고 생각하지만, 또 안정시켰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충돌의 위험을 대비하면서 국가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저는 가능성은 있다는 쪽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성 진급하면 드리는 칼이 삼정도(三精刀)입니다. 삼정도를 족보 있는 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거기 문구를 하나 새기기로 했는데 제가 필사즉생(必死卽生)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두 개의 문구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위국헌신(爲國獻身)이었습니다. 군인의 본분입니다. 또 하나는 필사즉생이었습니다. 제가 필사즉생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장군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는 쪽이 좋지 않습니까? 말뜻과 같이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는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사즉생의 자세로 반드시 결과

를 성취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필사즉생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질서가 계속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미·일·중·러 4개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미·일, 미·일·영과 같은 해양세력이 한편이 되고 중·러와 같은 대륙세력이 한편이 돼서 한반도를 항상 경계선으로 놓고 대립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대립의 전선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이유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언젠가 또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리적 숙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 또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일 구도만으로도 동북아시아는 다소 불안한 정세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군비 경쟁이라든지 정치적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오랫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패권적 사고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드린 책 하나가 이와 같은 사고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계 질서에 대한 통사를 써 놓은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불행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궁리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개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국력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국력을 확고하게 다지고 그 토대 위에서 군사력을 확고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참혹하게 당했습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고 아마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서울을 내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

문입니다. 돈도 없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구한말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구한말 때도 논의는 분분했습니다. 일본까지 사람이 갔다 오고 쳐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는 분분했지만 아무런 대비는 없었습니다. 물론 서인이 득세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정쟁을 위해서 안보 상황을 옥신각신한 것이지 아예 대비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한심하게 행동했습니다. 구한말에도 역시 우리는 아무런 군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것이라서 거듭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력은 기본입니다. 군사력도 기본입니다. 우리는 분열했습니다. 분열로 인해서 전쟁을 당했거나 또는 전쟁에 졌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분열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원인이었지만, 전쟁 때도 끊임없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분열은 동인과 서인의 싸움 와중에서 이순신 장군이 투옥되고 자칫 하면 희생될 뻔한 것이었습니다. 구한말 때도 국론이 통일된 일이 없습니다. 지도부 상호 간에, 지도부와 백성들 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가 좀 돌이켜 볼만한 사례라고 한다면 고구려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구려가 끝내 무너졌습니다. 598년에 30만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612년에는 113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맞아서 물리쳤던 그 강대국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 크게 보면 신라와 백제가 뒤에서 받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라와 백제와의 사이에서 동맹관계를 맺지 못하고 적대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항상 배후가 불안한 국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으로 보면 그것이 큰 의미에서 하나의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국력이 중국 쪽으로 뻗어 나갈 수 없었던 아킬레스가 뒤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군사적으로 통일되거나 동맹관계를 맺어 나갔더라면 고구려가 위로 뻗어 나갈 수 있거나 적어도 나라를 지켜낼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42년에 연개소문이 등장합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에 의해서 등장하면서 국내적으로 약간의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소위 상국인 당나라에게 내정간섭의 빌미를 준 것입니다. 실제로 645년에 당 태종이 쳐들어 왔는데 그때도 역시 잘 막아냈습니다만, 국력은 그때부터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남생이 당나라로 도망가서 당나라 군사를 앞장서 이끌고 들어오고, 666년에 연정토가 신라로 도망가서 신라 군사를 앞장서 이끌고 들어와서 결국 고구려가 668년에 무너졌습니다. 1년간 항쟁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국력은 앞으로 지속돼 나갑니다. 다이내믹 코리아, 이렇게 선전하고 있죠? 코리아는 지속돼 나갑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군이 왜 조선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짓밟히고 있는가를 분석했는데, 조선 조정이 나태하고 분열되고 의존적 태도를 가지고 명나라만 믿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구한말에도 국내적으로 무슨 일만 생기면 청나라 군대를 불러옵니다. 임오군란 때도 청군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을 압송해 가고 위안스카이가 주둔하면서 내정간섭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누군가가 불러왔습니다. 그 뒤 갑신정변 이후에 톨진조약에 의해서 양쪽이 철퇴했다가 다시 1894년에 동학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시 청군을 불렀는데 일본이 먼저 달려온 거죠. 의존적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께 드린 책에 소개된 것을 보면 선조는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한양을 비우고 평양으로 도망을 가고, 한양이 함락되자마자 요동으로 도망을 가겠다고 했답니다. 다행히 동인의 유성룡은 말할 것도 없고 서인의 윤두수도 반대를 해서 몽진(蒙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놈들한테 맞아 죽기보다는 죽어도 군자의 나라에 가서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넘어가겠다고 했고, 명군이 파병을 하니깐 그때부터는 무조건 싸우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장군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순신 장군 보고 싸우러 나가라는데 안 나간다고 잡아넣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 역사를 몰랐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창피스러웠습니다.

인조 시대에 병자호란이라는 것이 그랬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두 번 모두 아무 전략 없는 강경 정책으로 실패했고, 대원군도 큰 틀에서 정치적 전략이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사대부도 적으로 돌리고 백성도 다 적으로 돌려놓고 나니까 개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마침내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동학 교도를 죽였고, 1866년도에는 병인사옥이라고 해서 소위 이단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8천 명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이 세월이 금쪽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1863년에 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1873년에 물러날 때까지 이 시기에 우리가 개방을 하고 선진 과학문명을 받아들이고 제도를 개혁해 나갔더라면 성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명치유신이 1868년에 일어난 것을 보면 어쨌든 우리도 1863년에, 1865년쯤이라도 개혁하고 개방했더라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몇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일전쟁 때 우리가 일본군을 불러들이지 않았더라면, 1900년 정도까지 실수 없이 관리해 왔더라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렇게 가정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대원군 시대까지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준비했더라면 확실하게 성공하는 것인데, 대원군 때까지만이라도 준비했으면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민씨정권’은 전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왕좌왕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친일정부 한 번 세웠다가 안되면 친청정부 한 번 세웠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친러정부 쫓아갔습니다. 주체적 역량으로 바로 서 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었죠. 이미 자주적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략의 부재, 이것이 민족에게 그야말로 참담한 비극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정리한 책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 드렸습니다.

많은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앞일을 알자면 옛날 일을 아는 것이 옳다 싶어서 많은 역사책을 부지런히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하고 머리가 트여야 하는데 트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여기에다 토론해서 우리 생각을 좀더 덧붙이면 이걸 정답이다 할 만큼 전략적인 인과관계가 잘 정리돼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많은 소장학자들의 분석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전략적 사고로 참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별거 있습니까, 국력을 길러야죠. 우리가 비전과 전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비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다본다는 말이고, 전략은 그 전망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길이 뭔지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내다봤는데 우리 살길이 아무데도 없으면 어떡하죠? 많은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길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과 전망 중에 우리가 살길이 있으면 알겠다 하고 그 길로 가면 되겠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길은 꺾꺾 막혀버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글을 읽을 때 답답합니다.

길이 없는 비전은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갈 길이 없는 비전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예측일 뿐입니다. 거기에 내가 갈 길을 내는 것이 전략 아니겠습니까? 내가 갈 길을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 의지가 실려야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실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이겁니다.

국력을 키우자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력의 총화는 세계 10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성장해 오기 때문에 이 순위는 약간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10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14위였는데 그동안 몇 계단 올라서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

장 융성했던 때가 언제냐고 하면 고조선 때는 잘 모르겠고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가 국운이 융성했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 시대입니다. 그때 이래로 지금 국력이 최고입니다. 세종대왕 시대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는 학자들이 한번 분석해 봐야겠지만 지금 이런 수준으로 갑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대왕의 창조적 사고와 기풍을 계속해 나갈 사회적 토대가 없어서 세종대왕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창조적 기풍이 계승돼 나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국민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 시절에도 천민사상, 민본사상을 가지고 백성의 기를 살렸기 때문에 과학상의 발명이라든지 군사적으로 사군과 육진을 개척한다든지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나라의 정치를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도자들이 자기들 권력 중심으로 쳐다보고 백성들을 다시 사고체계 밖으로 밀어내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침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힘들게 만들어 놓은 한글도 뒷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시대 국운은 지속되지를 못했습니다. 정조대왕 때 반짝했습니다만 정조대왕 역시 왕권을 강화하는 방식만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을 지지하던 많은 학자들까지 일망타진되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국력은 앞으로 지속되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지도자의 위치에 와 있고, 민주주의가 활력 있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기가 충천하고 있어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 분위기는 계속됩니다. 시장의 경쟁에서 창조적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자유와 평등의 정치제도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창의가 만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갑니다. 깨지 않으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해야 됩니다. 이미

충분히 개방했습니다만 더 개방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있으면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광목이 들어오니까 베틀에서 짠 베 한 필 가져가서 아이들 천자문 책 사 오던 우리 어머니들의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처럼 대비 없이 해서는 안되지만, 들어오면 피해를 입는 쪽이 항상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목이 그냥 들어오면 안되고 광목 기술이 들어오면 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때 광목 기계를 들여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개방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만, 이제 산업적 기반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조선·자동차·전자·통신·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항공 산업도 곧 그렇게 갈 것입니다. 개방하고 교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분열을 극복해야 됩니다. 모든 형태의 분열을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고구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고구려가 통일을 했더라면 하고 뼈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고구려가 통일을 했더라면 우리가 중국 쪽으로 뺏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적어도 요동지방이라도 가지고 지금보다 좀더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경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을 못한 것은 우리 내부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구려 내부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든 동북아시아가 한·일·북·중, 한·일·미, 북·중·러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단히 불안한 요소가 되고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도 분열적 상황을 가급적 극복해야 됩니다. 남북관계가 이런 분열적 요소에 도화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그리고 남북 간 협력과 통합은 북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당 안에서 단결, 당과 당 사이

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단결, 국민도 전부 다 단결해야 하는데, 모두가 단결을 얘기하는데 단결이 안되는 이유는 나를 중심으로 단결하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전술·전략을 포함한 가치, 이 모든 사고체계가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도 옳을 수 있고 나도 옳을 수 있고, 너와 나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지만 공존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발명한 최선의 절차, 민주주의가 완벽한 절차가 아니고 많은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고 절대로 상대방을 배제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말에 동양이 다 식민지가 됐는데, 살아 있는 나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아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딱 하나 예외인 나라가 태국이었습니다. 인도차이나를 프랑스가 점령하고 미얀마를 영국이 점령하자 태국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완충지로서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충돌하지 않기로 한 측면이 있고,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태국이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되었고 우리는 그 예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분단을 이겨낸 나라는 오스트리아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와 사정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같다, 안 같다는 문제를 떠나서 서로 다른 행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이고, 또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한테 의지해서 우리 미래를 맡기는 일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번번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 군대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장수들 데려다가 불기치기까지 하고 임금까지 바꾸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남한테 의지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략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역사적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 봐야 됩니다.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동떨어진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슷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역사적 사건들은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역사적 안목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봐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사고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고려할 것은 다 답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확고한 원칙, 그리고 우선순위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이 제1번입니다. 평화와 안전이 똑같은 것일 수도 있고 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서 안전이 1번이고, 평화가 2번입니다. 3번이 통일입니다. 통일에 관해서 국가연합, 연방제 다음에 통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경제통합이 제일 우선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먹고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통합 다음에 문화통합, 그 다음에 정치통합의 순서로 가야 하고 시간을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게 잡아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평화를 깨는 통일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은 평화를 포기하고 통일을 선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통일을 얻기 위해서 평화를 포기하고 전쟁을 선택했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미국 남북전쟁 때와는 상황이 달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평화가 깨지면 통일이 오지도 않고 더욱더 분단은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부가 나지도 않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질서가 아주 심각해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북지원 때문에 시비가 있습니다. 대북지원 문제는 1차적으로 평화 비용으

로 생각하고, 2차적으로는 통일 비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평화적으로, 그러면서도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은 신뢰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얘기해도 상대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도록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대북 지원이 거기에 해당되고 NLL(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공존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존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지 북한에게 전술적·전략적으로 유리한 이익을 주어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위기요인을 제거하는 것, 압력을 낮추는 것, 신뢰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자주국방하자니까 반미하자는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자주는 자주고 반미는 반미입니다. 별개의 개념입니다. 친미 자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개방적 자주, 우호적 자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적 자주로 표현을 합니다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협력하면서 간다는 말이겠지요. 그 외에 모든 나라들과 우리는 우호적인 자주관계를 가져갈 것입니다.

안보는, 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큰 틀로서 전략적으로 사고해서 전쟁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만큼 뒤에 우리 부담이 커집니다. 지금 투자하는 것이 다른 어떤 투자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마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기초를 딱 몇 마디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치는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와 역사에 관해서는 원칙주의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원칙주의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점진주의 내지 단계주의로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국방 빨리 하라고 다잡고, 어떤 사람은 자주국방 천천히 하면 안되느냐고 얘기하지만, 제 입장은 적절한 속도로 가

자는 점진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국방 문제에 관한 한 우리 군에서 대체로 판단해서 하고자 하는 대로 제가 승인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에 있어서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보 문제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이 저의 정치를 이런 관점과 틀로 보시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힘내십시오. 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 많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만일에 아직 그렇지 않다면 제 임기 마칠 때쯤 다시 측정해 보면 확실하게 높아진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예측하지 않았던 몇몇 사고들이 있었고, 군 내부에 이런저런 수사도 있었고 이것저것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서 요새는 그런 문제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군 병력 관리상의 사고가 있었습니까만 국방부와 군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겹게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그런 우연적 사고도 확률이 점점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단지 우연만은 아니거든요. 관리 수준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잡음이 없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미지가 제일 많이 바뀐 데가 국정원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사를 걸어놓고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들인데, 국민에게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은 전쟁에서 희생을 바치는 것만큼이나 보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합시다. 사고 안 나게 더욱 관리 잘 하십시오. 병영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 모든 것이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니다. 우리도 좀더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대통령 판에는 싸움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서 국방비를 상징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올려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